

http://dx.doi.org/10.17703/JCCT.2024.10.4.17

JCCT 2024-7-2

인간안보 차원 이스라엘-하마스 전쟁과 안보정책적 함의

Human Security Dimension Israel-Hamas War and Security Policy Implications

배일수*, 정희태**

Il Soo Bae*, Hee Tae Jeong**

요약 2023년 10월 7일 발발한 전쟁은 장기화하면서 중동지역으로 확대되고 있다. 전쟁의 피해도 증가하지만, 가자지구에 대한 인도주의 지원은 UNRWA의 일탈행위로 지원 중단에 봉착하였다. 강대국은 지원을 중단하였고, UN은 가자지구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모든 피해는 가자지구에 있는 민간인, 특히 여성, 아동, 노약자의 몫이다.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 대피구역과 대피로를 선정하고, 국경지역에 인도주의 지원 통로를 마련했다. 하지만 하마스의 민간인 밀집지역과 병원, 학교 등 민간시설을 방패로 지하터널에서 항전은 더욱 민간인 피해를 증폭시켰다. 이번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은 국제사회가 인간안보 차원에서 접근이 필요하다. 우리는 UN의 기능과 역할에 힘을 실어주어 인도주의 물자가 현장에 전달되고 인도주의 개입군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과 기본권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을 통해 UN 역할의 신뢰성을 회복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한국은 인도주의적 지원과 물품 반입을 촉구하며, 생필품, 약품 등 인도주의적 물품을 지원해야 할 것이다. 향후 UN 평화유지군의 일원으로 투입할 준비도 병행해야 한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지원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주요어 : 이스라엘, 하마스, 인간안보, UN, 인도주의

Abstract The war that broke out on October 7, 2023 is prolonging and expanding into the Middle East. Although the damage from war is increasing, humanitarian aid to the Gaza Strip has been halted due to UNRWA's deviant actions. Powerful countries have suspended support, and the UN is appealing for support for the Gaza Strip. All damage is borne by civilians in the Gaza Strip, especially women, children, and the elderly. Israel has selected an evacuation zone and evacuation route in the Gaza Strip and established a humanitarian aid route in the border area. However, Hamas's resistance in underground tunnels, using civilian-dense areas and civilian facilities such as hospitals and schools as shields, further amplified civilian casualties. This Israel-Hamas war requires the international community to approach it from a human security perspective. We must strengthen the UN's functions and roles to ensure that humanitarian supplies reach the field and humanitarian intervention forces ensure human dignity and basic rights. We must restore the credibility of the UN's role through the Israel-Hamas war. In addition, Korea should urge the introduction of humanitarian aid and goods, and provide humanitarian goods such as daily necessities and medicine. We must also prepare for deployment as a member of the UN peacekeeping force in the future. These activities will help Korea develop into a model country that fulfills its role as a 'global pivotal nation' and will have a virtuous cycle of international support in the event of a future crisis on the Korean Peninsula.

Key words : Israel, Hamas, Human Security, UN, Humanitarianism

*정희원, 육군대학 전략학과 교수 (제1저자)

**정희원, 서경대학교 군사학과 교수 (교신저자)

접수일: 2024년 4월 16일, 수정완료일: 2024년 5월 17일

게재확정일: 2024년 6월 1일

Received: April 16, 2024 / Revised: May 17, 2024

Accepted: June 1, 2024

*Corresponding Author: ilsoo45@naver.com

Dept. of Strategy, ROK Army College, Korea

I. 서론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하 이-하 전쟁)은 2024년 1월 15일 현재 100일을 지나며 중동 전역으로 확장하면서 장기전으로 치닫고 있다. UN에 따르면 10월 7일 시작한 전쟁은 이날까지 팔레스타인인 2만 4,000명, 이스라엘인은 1,200명 가량 사망했다. 피해자 대부분은 여성과 아동 등 민간인이다[1]. 가자지구에 거주하는 200만 명 넘는 팔레스타인 주민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봉쇄정책으로 해외 원조에 의존해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지역이다. 가자지구는 지원이 끊기면 주민들의 인도적 위기는 심화할 수밖에 없는 지역이다.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현재 가자지구는 인구 90%에 해당하는 약 190만 명이 난민 신세다. 설상가상으로 가자지구의 계절 변화와 기후는 임시 텐트에 거주하는 난민들에게 인도적 위기를 가중하고 있다.

유엔 팔레스타인 난민구호기구(UNRWA)에 의하면 가자지구에서 굶주린 주민은 구호 트럭을 멈춰 세우고 음식을 가져가 먹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한다. 유엔 산하 세계식량계획(WFP)은 가자지구 남부로 지상전을 확대한 이후 가자지구 주민들의 절반이 굶주리고 있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마거릿 해리스 세계보건기구(WHO) 대변인은 수인성 전염병과 박테리아 감염, 유아 설사가 늘고 있다면서 “비가 고통을 가중할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린 헤이스팅스 유엔 팔레스타인 점령지구 인도주의 조정관도 “대피소는 이미 오래전 최대 수용 인원을 초과했고 화장실에 가려면 몇 시간씩 줄을 서야 한다”라면서 “이는 보건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라고 우려를 했다.

유엔 헌장에 명시된 불가침(1장)과 비개입원칙(2조 4항과 7항)은 타국에 대한 무력 사용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무정부(anarchy) 상태인 국제체제에서 ‘한 국가의 가장 높은 정치적 권력은 그 국가에 있다’라는 ‘주권(sovereignty) 국가’의 개념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서구 중심의 보편적 인권의 개념이 문화적 상대성과 내정 간섭이라는 이유로 주권국가들은 유엔의 보호책임(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원칙과 인도적 개입(Humanitarian intervention)을 곱게 보지 않고 있다. 더불어 전쟁의 교훈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아무리 인권 향상과 생명 존중 같은 옳은 목적을 가진 전쟁이라도, 전쟁은 전쟁이라는 것이다. 전쟁의 비용과 부작용은 피

할 수 없는 결과인 것이다.

따라서 국제사회가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에 대한 정책적 판단을 내릴 때는 정의로운 전쟁 이론(just war theory)에 따라, 전쟁이 성공할 확률, 예상되는 부대 및 민간인 사상·사망자, 여론, 전략적 이익 등과 같은 요소들을 전쟁 시작 전(jus ad-bellum)과 전쟁 중 적과 싸우는 과정(jus in-bello)에서 끊임없이 고려해야 한다[2]. 한편으로, 우리는 국제사회가 싸울만한 -도덕적으로, 법적으로, 전략적으로- 올바른 이유와 책임을 가졌다고 하더라도, 보호책임과 인도적 개입을 바로 실행하면 전쟁이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 하며, 전쟁은 다른 수단을 사용한 정치라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II.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하 전쟁 경과를 살펴보고, 전쟁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도주의 사례를 연구하여 인간안보적 차원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지금까지 선행연구 결과 이-하 전쟁에 대해 인도주의적 분석이나 인간안보 차원에서 분석은 없는 상태이다. 단지 UN을 비롯한 주권국가별 그리고 비정부기구, 국제기구는 하마스, 이스라엘에 대해 비난하며 인도주의적 지원을 호소하고 있다. 이-하 전쟁은 하마스와 이스라엘 간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과 아랍국가 간의 문제인 동시에 미국을 포함한 서방과 중·러를 포함한 권위주의 국가 간의 대결로 치달으면서 전쟁 현장에서 발생하는 인도주의적 문제는 심각성을 더해가고 있다.

더불어 이스라엘은 민간시설과 민간인을 방패 삼아 항쟁의 의지를 꺾지 않는 하마스를 향해 하마스 존재 자체의 종말을 선언하며 절대전쟁으로 나아가고 있다. 이러한 현상이 이-하 전쟁에서 인간안보 차원의 인도주의적 문제해결 필요성을 더욱 절감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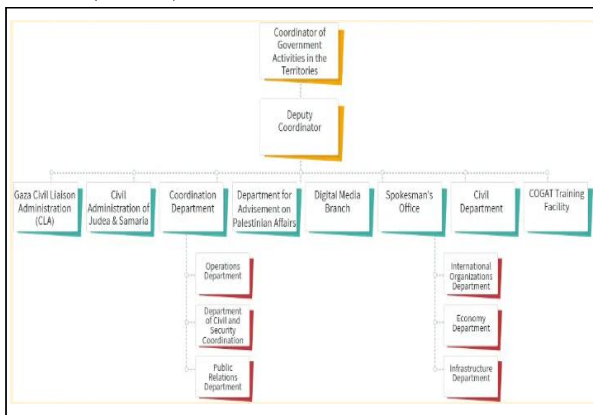
본 연구의 목적은 이-하 전쟁 간에 발생하고 있는 인도주의적 문제를 인간안보 차원에서 고찰하고, 인도주의적 피해를 최소화하고 인간의 생명과 인권,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안보정책적 대책을 살펴보고 몇 가지 논의와 함께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다.

III. 전쟁의 경과 및 인도적 피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의 인도적 지원을 위해 전쟁 발발 이전부터 노력하였다. 가자지구 남부 해안 소도시 알마와시에 ‘인도주의 구역(humanitarian zone)’을 설정하여 국제사회의 인도적 구호품이 제공되도록 하였다.

〈그림 1〉에 보인 바와 같이 이스라엘방위군(IDF) 산하 민사기구인 코가트(COGAT)(Coordin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in the Territories, 이하 COGAT) 활동은 가자지구에서 거주하는 팔레스타인인의 인도주의적 문제를 식별하여 조정하는 역할을 하는 기구이다.

그림 1. 영토내 정부활동 조정기구(COGAT) 편성
 Figure 1. Coordination of government activities in the territories(COGA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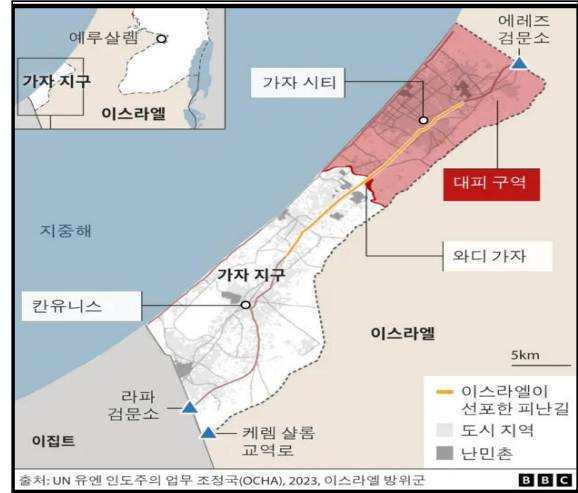
COGAT는 가자지구에 대한 접근을 조정하고, 국제사회의 활동을 촉진하며, 이스라엘과 관련하여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주민의 인도주의적 필요와 요구 사항을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민사기구이다. COGAT는 라파 검문소의 남부지역의 케렘 샬롬 검문소를 추가 개방해 구호물자 양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등 탄력적 인도적 조치를 취하고 있다[3].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하기 이전에는 보통 하루에 트럭 400~500대 분량의 구호품이 전달되었다. 하지만, 하마스가 공격하자 이스라엘은 라파 검문소를 차단과 동시에 가자지구를 봉쇄했다. 며칠 후 국제적 비난에 라파 검문소는 개방되었지만 20~30대 분량만 지원되었다.

〈그림 2〉에 보인 바와 같이 이스라엘은 가자지구에서 대피구역을 설정하고, 피난민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대피통로를 마련하였다. 이스라엘은 지상작전 전개 시 가자지구 민간인 피해를 고려하여 대피구역을 선정하고 피난길을 안내했으며 난민촌 지원과 케렘 샬롬

지역에 추가 교역로를 보장하였다[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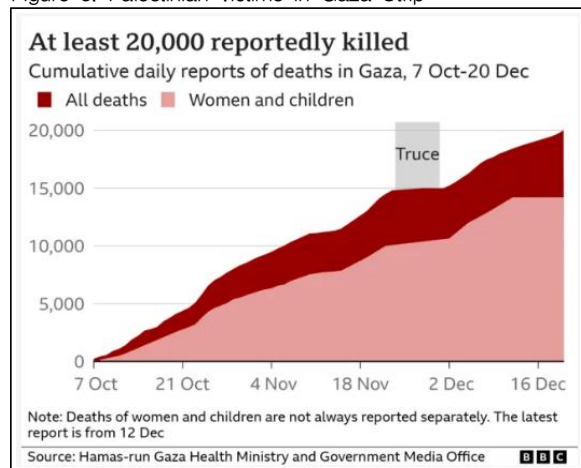
그림 2. 이스라엘의 대피구역과 피난길 선포
 Figure 2. Israel declares evacuation zones and evacuation routes



가자지구의 전쟁 피해는 이번만이 아니다. 2009년 당시 지상작전 간 가자지구의 사망자 1천 417명 가운데 65%가 민간인이었고, 2014년에는 민간인 1천 462명이 희생되었다. 특히 이번 지상작전은 이스라엘이 하마스 궤멸을 목표로 강도 높고 긴 전쟁을 예고한 만큼, 가자지구는 ‘피바다’가 될 거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그림 3〉에 보인 바와 같이 가자지구에서 팔레스타인인의 희생자를 나타낸 보고서다.

그림 3.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 희생자
 Figure 3. Palestinian victims in Gaza Strip



전쟁으로 인한 사망자의 대부분은 여성, 어린이, 노인이다[5]. 12월 13일 BBC 보도에 의하면, 하마스의 공

격으로 이스라엘 주민 1,200여 명이 사망하고 240여 명이 인질로 붙잡혔다고 하였다. 이스라엘 인질 일부는 짧은 휴전 기간을 거치며 풀려나기도 했다. 또한, 하마스가 장악한 가자지구 보건 당국에 의하면 이스라엘의 군사작전으로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해 1만 8,200여 명이 사망했으며, 최소 5만 명이 부상했다고 보도했다. 그 중의 어린이와 여성 희생자가 67%이다.

팔레스타인 국민은 전쟁의 피해로 치료할 약품, 식량, 주거시설 부족 등 인간으로서 누려야 할 최소한의 기본권도 누리지 못하는 최악의 삶을 영위하고 있다. UN과 국제사회에서는 이스라엘을 비방하며 전쟁을 중지할 것과 인도주의적 물자가 민간인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호소하고 있다. 이에 부응하여 이스라엘도 작전 간 민간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인도주의적 노력을 다하고 있다. 가자 북부지역부터 지상작전을 시작하며 북부지역 민간인은 가자 남부지역으로 피난할 것을 알렸다. 이스라엘은 전단지 공중살포와 이동통로 마련, 대피기간을 설정하여 민간인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였다. 또한, 이집트와 국경지역에 인도주의적 통로를 마련하고 국제사회의 인도주의적 물자가 반입되는 여건을 마련하였다. 민사부대를 이용하여 국제기구와 협력하여 난민에 대해서는 거주지역을 설정하며 인도주의적 조치를 하였고, 언론과 SNS를 통해 민간인 피해 최소화를 위한 이스라엘의 조치들에 대해서 전략적 소통을 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마스의 기습공격과 인질 납치, 무자비한 테러 행위에 대해서 이스라엘의 분노는 응징적 보복으로 치달았다. 하마스가 병원, 학교 등 민간인을 보호해야 할 지역에 거점을 형성하였기 때문에 이스라엘 지상작전은 민간인 피해가 불가피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이스라엘은 국제사회의 비난과 고발을 피해 가지는 못했다.

2024년 1월 26일,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이스라엘을 상대로 가자지구 집단 대량학살(genocide) 고발 사건에 대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 ICJ)는 이스라엘에 가자지구에서의 대량학살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권한 범위 내에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령했다[6]. 또한 국제사회는 가자지구의 민간인 희생에 대해 외교적·인도주의적 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국제엠네스티는 "이번 판결은 중요하다. 이스라엘은 팔레스타인 국민에 대한 집단학살을 막기 위해 최선을 다하라는

ICJ의 핵심 판결을 준수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지구촌에 있는 243개의 국가(유엔 가입국 193개국)는 고유한 국가 주권을 가지고 있다. 국제사회는 국가라는 합리적 행위자를 조정 통제할 상위 세계정부가 없는 무정부적 사회이다. 또한, 국가들은 사활적 이익을 추구하기 때문에 국제기구의 판결과 권고로 전쟁의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은 쉽지만은 않다. UN이 미얀마 쿠데타, 러-우 전쟁,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등에 강압적인 권력행사를 못하는 것도 이러한 이유이다. 하지만 인간의 보편적인 가치와 인권, 생명, 기본권을 해치는 보복적 행위는 갈등과 복수의 쳇바퀴만 돌아갈 뿐 세계 질서를 더욱 어렵게 만든다. 그리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선량한 시민, 즉 국가를 구성하고 있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따라서 인간안보 차원에서 인류의 보편 타당한 인명 중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은 유의미한 공통의 해결과제이다.

IV. 안보정책적 논의 및 제언

1990년대에 들어서 독일의 통일과 구소련의 패망으로 국제질서는 탈냉전 시기를 맞이하였다. 즈음에 인간안보는 1994년 UN에서 최초 주창되었다[7]. 기본 취지는 어떠한 이유이든지 폭력과 공포로부터 인간의 기본권, 생명, 인권 등을 보호하자는 것이다. 러-우 전쟁과 이-하 전쟁을 교훈 삼아 국제사회는 UN에서 주창했던 인간안보 정신을 살려, 비록 불가피한 전쟁일지라도 인간안보를 실천할 수 있는 실천적 유용성을 마련하는 것은 정당하다.

전쟁의 도덕적 명확성은 법에 기반한다. 민간인을 고의로 표적으로 삼는 행위는 국제법과 전쟁법의 위반이다. 민간인의 공포를 자극하기 위한 폭력도 국제법상 금지 사항이다. 민간인을 인질로 납치하는 행위도 국제법 위반이다. 최근 이스라엘을 공격하면서 하마스는 이 세가지 행위를 모두 저질렀다. 하지만, 이스라엘 또한 유감스럽게도 초기부터 대응에 문제가 있었다. 가지 지구에 식량과 수도전기를 차단해 전면 봉쇄한다는 발표가 대응의 시작이었다. 군사적 대응도 과도하게 전개하여 피의 복수를 전개하고 있다. 이스라엘의 영토밖에서 민간인과 민간시설을 구분하지 않고 끝장을 내는 전쟁은 국제인도법(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IHL)을 위반하는 정의롭지 못한 전쟁이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12월 12일(현지시간) UN 총회에서 가자 지구에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압도적인 찬성표를 얻으며 채택했다. 193개 회원국이 참석한 총회에서 153개국이 찬성표를, 미국과 이스라엘을 포함한 10개국이 반대표를, 23개국은 기권을 선택했다. 이번 투표는 적대 행위를 중단시키기 위한 UN 총회의 2번째 시도라고 할 수 있다. 이전 10월, UN 총회는 ‘인도주의적인 휴전’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는데, 당시 찬성 121표, 반대 14표였으며, 기권은 44표였다. 하지만 12월 8일,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담당하는 UN 안전보장이사회에선 가자지구 내 휴전을 요구 결의안 초안 채택에 실패했다. 5개 상임이사국 중 하나인 미국이 거부권을 행사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제사회는 UN의 정체성과 역할에 회의적이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UN의 역할을 진단하고 발전의 기회로 삼아야 할 것이다.

UN은 어느 국제기구보다 강력한 권력(power)을 행사할 수 있는 기구이다. 국제사회는 UN이 중심이 되어 이-하 전쟁에서 인도주의 지역을 선정하고 인도적 개입하도록 여건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유엔법에 따라 권력을 행사하고 강대국 중심으로 국제인도법에 준하여 인도주의 개입군(Humanitarian intervention force)을 구성하여 지원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자국의 이익보다 인간안보 차원에서 세계 평화와 인간의 존엄성,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아직은 이스라엘 민간인을 학살한 하마스에 대한 비난 여론이 거세지만, 이스라엘의 응징적 공격으로 가자지구 민간인이 계속해서 희생된다면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 어려운 시기를 맞은 이스라엘은 향후 반복해서 발생할 수 있는 갈등과 보복을 우려하며 자위권을 행사해야 할 것이다. 현시점에서 이스라엘은 처절한 상황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다는 것은 분명하다. 역사적으로 전쟁에 임하는 해당국은 ‘자신들이 항상 옳았다’ 그래서 전쟁은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 아니라, 정의와 또 다른 정의와의 싸움’이라고 했는지도 모른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스라엘을 방문해 네타냐후 총리와 회담을 한 뒤 연설하면서 ‘분노에 휩싸이지 마라’며 2001년 9월 11일 동시다발 테러를 당한 뒤 미국이 분노 속에 실수들을 범했었다고 말한 내용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정리하자면, 이-하 전쟁에서 인도주의 지역을 선정하고, 인도적 개입을 국제사회가 고려해야 하고 그 중

심에는 UN이 역할을 다해야 한다. 유엔법과 국제인도법에 따라 국제사회에 책임있는 강대국이 인도주의 개입군을 구성하여 현장에 투입해야 할 것이다. UN은 30여 년간 인간안보를 주창하며 매년 전쟁과 분쟁, 주요 국제안보 이슈가 발생할 때마다 평화와 안보를 부르짖고 있다. 이번 이-하 전쟁은 UN이 국제사회에 인간안보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좋은 시험무대(test bed)가 될 것이다.

V. 결 론

우리는 한국이 국제인도법과 2023년 11월 15일 채택된 유엔 안보리 결의에 근거하여 전면 봉쇄상태인 가자 지구에 인도적 구호물자가 반입되고 구호 인력이 출입할 수 있도록 외교적 노력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교전을 중단하고 휴전과 협상을 통하여 인도적 통로(humanitarian

pauses and corridors)를 확보해 줄 것을 촉구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우리나라가 세계보건기구(WHO), 국제적십자위원회(ICRC), 세계식량계획(WFP), 세계난민기구와 같은 국제기구와 연대하여 팔레스타인 및 이스라엘에 대한 인도적 지원에 참여해야 할 것이다. 특히, 가자지구의 기반시설이 무너지고 인구의 90%가 난민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의약품, 분유, 위생용품 등과 같은 인도적 물품을 먼저 지원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또한, 종전 이후 UN 차원에서 다국적 평화유지군이 설치된다면 한국군을 파견하여 치안 유지와 주민구호 활동을 전개하는 방안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활동은 한국이 ‘글로벌 중추적 중추국가’로서 소임을 다하는 모범국가로 발돋움하며, 향후 한반도 위기 시 국제적 연대와 협력에 선순환 작용을 할 것이다.

References

- [1] The JoongAng, “100 harrowing days... UN: 24,000 dead, 1,200 Israeli dead,” <https://www.joongang.co.kr/article/25222034> (Search date: 2024.1.26.)
- [2] S.C. Lee, “A Study on the Ethical Dilemmas of War Crimes seen through the Ukraine War,” *Moral Ethics Education*, No. 81, pp. 388-391, November 30, 2023, DOI : 10.18338/kojme.2023.81.383
- [3] Jewish Virture Library, “Coordination of Government

- Activities in the Territories(COGAT),” <https://www.jewishvirtuallibrary.org/coordination-of-government-activities-in-the-territories-cogat>(Search date; 2024.1.26.)
- [4] BBC NEWS Korea, “ Hamas Health Ministry announces, ‘700 deaths in 24 hours’, ” <https://www.bbc.com/korean/international-67191238>(Search date; 2024.1.26.)
- [5] BBC NEWS Korea, “ Israel-Hamas war as seen in the number of deaths in the Gaza Strip, ” <https://www.bbc.com/korean/articles/cw0dpl08z0po> (Search date; 2024.1.26.)
- [6] Yunhap News, “ ICJ orders Israel to prevent genocide in Gaza, ” <https://www.yna.co.kr/view/AKR20240126153651082>(Search date; 2024.1.28.)
- [7] UNDP, “ Human Development Report 1994(1994), ” New York Oxford University, pp. 24-25

※ 이 연구는 2024년도 서경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졌음